

GIST아카데미, 11월 조찬포럼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 특강, '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'

- 이정현 부위원장, '지방시대 비전과 전략' 주제로 27(월) 11월 조찬포럼 특강



▲ GIST아카데미가 오룡관에서 11월 조찬포럼을 개최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11월 27일(월) 오룡관에서 광주·전남 지역의 대표 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**11월 조찬포럼을 개최**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포럼의 연사로 나선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은 **'지방시대 비전과 전략'**을 주제로 강연했다.

제18대, 제19대,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역임한 이정현 부위원장은 **'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'**를 비전으로 제시하고, 이를 위한 목표로 **지방주도 균형발전, 책임있는 지방분권**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.

이날 강연에서 이 부위원장은 **'지방시대 전략과 가치'**, **'지방시대를 위한 9대 정책'**을 제시하는 한편,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와 기대효과, 미래상을 설명했다.

우선,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5대 전략으로 ▲ **'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'** ▲ **'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'** ▲ **'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'** ▲ **'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'** ▲ **'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'**를 내세웠다.

지방시대 9대 정책으로는 ▲기회발전특구 지정 ▲교육발전특구 도입 ▲지방정부 주도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▲로컬리즘을 통한 문화 콘텐츠 생태계 조성 ▲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▲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▲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▲킬러규제 일괄해소 ▲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제시했다.

또한 **지역 주도 아래 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의 필요성**을 언급하며, 지방정부의 중점과제로 **신산업과 특화산업을 육성, 교통인프라 확충, 지역 숙원사업 해결**이 중요함을 강조했다.



▲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이 '지방시대 비전과 전략'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.

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"지방 주도로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지방 청년인구가 증대하며 지방대학이 지역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될 수 있다"며, "**진정한 지역 대통합과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한다**"고 말하며 이날 강연을 마무리했다.

GIST아카데미는 GIST의 비학위과정으로 기술경영아카데미(GTMBA, 2010년 개원)와 기후변화아카데미(GCCA, 2016년 개원)를 운영하고 있으며,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카데미 동문 및 지역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를 강연자로 초청하는 'GIST아카데미 조찬포럼'을 개최하고 있다.

GIST아카데미는 각 분야 경영자들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 강의를 통해 기업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경영전략 등을 깊이 이해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.